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여호수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5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여호수아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권•두•언

우리들의 가정을 진실한 소망 위에 세웁시다

세월은 살같이 빨리 지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행복한 웃음을 품고 산으로 들로 소풍을 떠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새롭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희망에 찬 가정의 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의 가정은 희망에 찬 가정입니까?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에 찬 물을 끼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소중하려면 우리들이 품고 있는 희망이 진실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가장은 돈벌이에 모든 힘을 쏟고 주부들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과 입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들, 아무리 즐거운 소풍을 떠나본들, 아무리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 본들 거기에 어떤 참다운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진실한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직장에 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키우고, 그리스도를 위해 공부하는 가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가정의 달에는 이러한 축복, 진정한 소망 회복의 축복이 충현의 모든 가정들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99년 5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여호수아서 서론

여호수아서는 구약 역사서의 시작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후기 역사서를 이어 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모세 오경의 경우 각 권의 첫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반면에 여호수아서는 역사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정해졌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아"(느 8:7) "호세아"(민 13:8, 16; 신 32:44)로도 불리는데 신약에서 "예수"(마 1:21)가 바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인 것이다. 책이름에서도 보듯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창 12:7)을 충실히 지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언약하신 바를 성실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내려옴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했다.

역사서의 첫머리를 여는 본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1:2, 3) 정복의 완수에 대한 진술로 끝을 맺고 있는데(23:14),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던(출 19:5, 6)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을 따르지 말고, 성실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제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과 죄악을 탐닉하면서(23:7, 16; 24:15, 16, 20)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버린 이스라엘의 죄

악을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본서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표기가 포로시대 이후에 와서는 예수아로 바뀌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이름이 헬라식 표현인 예수로 바뀌게 되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승리와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는 것이 창가에 달아내린 붉은 줄로 인함인데(수 2:17-21)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히 9:19-22).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한다(롬 1:16, 17).

내용 흐름

서 론 / 1:1-18 -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1부 가나안 정복 / 1:19-12:24
1. 가나안 정복 준비 1:1-5:15
2. 가나안 정복 6:1-12:24
2부 가나안 정착 / 13:1-24:33
1. 요단강 동편 지역의 정착 13:1-33
2. 요단강 서편 지역의 정착 14:1-19:51
3. 종족적 공동체의 정착 20:1-21:45
4.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22:1-24:28
결 론 / 24:29-33 - 여호수아의 죽음

1 (토) 담대함의 비결

찬송 / 382장 본문 / 수 1:1-18

여호수아서 1장은 '담대하라' 는 말로 가득차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6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7절). '내게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9절).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게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이에 가세하여 여호수아를 향해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8절)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있는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 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고, 책임 맡아야할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여호수아 앞에는 싸워야 할 막강한 가나안 군대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 은 무엇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수립하고 무기를 모음으로 담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절) 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오직 말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안에 거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믿음의 길, 담대한 길을 걷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일) 2

찬송 / 344장 본문 / 수 2:1-24

라합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녀의 믿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야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전해졌고, 가나안 백성들은 알음 알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9절).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뿐이지만, 라합은 믿었습니다. 두려움은 자기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자신을 맡기는 신(神)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는 야고보 사도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모두 인상깊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믿음도 매우 놀랍지만,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정탐보낼 때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 뜻은 '그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리고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전쟁이 치뤄진 결과를 보면, 사실 정탐이 과연 필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은 매우 싱겁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정탐을 보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그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성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얻은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없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3 (월) 증거

찬송 / 252장 본문 / 수 3:1-17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0절).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는 말씀처럼 용기를 주는 말이 없습니다.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탐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하려는 그들에게는 더 큰 믿음의 용기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수행하시고 끝내실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환경과 조건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에 더 힘차게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명령하시기를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백성들이 좌충우돌하는 것을 막고,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로하여금 먼저 발을 담그게 하셨고, 백성들은 이천규빗(약 900미터)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강바닥에 닿자 곧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정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넜습니다.

위대한 증거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화) 4

찬송 / 355장 본문 / 수 4:1-5:1

세월이 흐른 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에 대하여 어떤 말들을 주고 받을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간증을, 어떤 기념비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특히, 신앙의 세대간 단절현상이 뚜렷한 요즈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욱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해 줄 수 있는 기초를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열두 사람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물이 끊겨 말라버린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영한 기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걸어서 건너기를 홍해를 건너듯 한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소중한 유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합니까? 영어와 수학,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배워주는 데에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 작은 시간조차 아까와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남겨줄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자녀를 키우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5 (수) 전쟁터 앞에서 할례를

찬송 / 399장 본문 / 수 5:2-15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다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인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좀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의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무성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시적이나마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할례를 시행토록 명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광야세대 전원이 할례를 받는다면 적어도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거의 제로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구비나 전략의 수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거룩한 영적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손에 잡힐듯한 인간적 수단의 준비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준비해야할 최우선의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루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순종과 기다림 (목) 6

찬송 / 344장 본문 / 수 6:1-14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첫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가나안 전쟁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이 작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유치부 어린이들로부터 연세많으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철저한 침묵가운데 하루 한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와 조용히 움직이는 백성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여리고 주위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칠일 째 되는 날에는 일곱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음과 침묵의 끝에서 제사장들의 긴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것은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치라' 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6일 동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 곧, 온갖 고민과 갈등 속에서 기도한 끝에, 이제 내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행한 후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는 일만 기다려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어린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의 끝을 기다리는 설레임!!

순종과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7 (금) 무너뜨림과 살려냄

찬송 / 410장 본문 / 수 6:15-27

지난 엿새동안 매일같이 와서 나팔을 불면서 한바퀴씩 돌던 무리들이 일곱째날에는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모습으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일곱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간의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한 순간 목소리를 모아 엄청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일순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들어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다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향해 한 여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살릴 것을 명합니다(17절).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에는 이전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라합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합니다(22절). 이에 따라 라합과 그 가족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입은 은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25절). 신약에서는 라합의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소개합니다(히 11:31). '믿음'이 그러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온갖 상황에서 살려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림 가운데서도 건져냄을 얻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짐을 이겨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아이성 전투의 실패 (토) 8

찬송 / 202장 본문 / 수 7:1-15

이스라엘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여리고성의 전리품들 중의 일부를(수 6:18, 19) 자신의 장막에 감춘 아간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아이성은 인구 1만2천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피흘림없이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하셨습니다(삼상 17:47).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군사들이어야 했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순결을 잃어버린 실패였던 것입니다(13절).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때만 가능하다(레 19:2)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본질입니다(11절). 이 원리는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느니라." (고전 12:12-3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날마다 성결된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각자가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롬 9:27) 할 것입니다.

성결된 공동체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9 (주일) 하나님의 요구

찬송 / 410장 본문 / 수 7:16-26

이스라엘 군대의 어처구니없는 실패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패배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수 7:7).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왜 하나님의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다분히 도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패배의 원인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치 않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16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서(민 26:52-56)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성결에 금이 가게 한 장본인인 아간을 색출합니다(18절).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죄와 물건을 함께 감추고 있었습니다(19-20절). 모든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기 전에라도, 아니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자신의 죄를 자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주고 때늦은 후회를 했던 가룟 유다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출 34:7). 반드시 죄악을 갚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서 죄의 표상인 아간을 그의 전리품들과 함께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26절).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살전 4:5).

뽑아야 할 죄악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여호와의 승리 (월) 10

찬송 / 399장 본문 / 수 8:1-29

패배 이후의 승리는 더욱 뜻 깊은 승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공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1절).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든 전쟁을 이루어 나갑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험과 지식과 드러난 사실들을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실패가 보여 주듯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객관적이라는 자료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자주 속여 왔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합니다(10-17절). 그리고 대승이 따라 왔습니다(21-29절). 복병을 알지 못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 놓고 초계병들을 뒤따르던 아이성 군사들은 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성이 빼앗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그를 따르고 순종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의 중요한 관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은 승리의 지렛대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1 (화) 율법의 낭독

찬송 / 377장 본문 / 수 8:30-35

아이성 전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있는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뻐저린 실패 뒤에 소중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여 섭니다(33절). 여호수아는 모여든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신 11:29) 드려진 화목제물은 저주와 죽음의 땅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어린양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다 드린 후에(30, 31절)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는데 이 돌은 제단을 쌓기 위해 쓰인 다듬지 않은 돌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똑똑하게 새기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한 돌입니다(신 27:4).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 후 요새 대신 단을 쌓고, 승전비 대신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한 것은 앞으로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여호와의 법에 거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린 이스라엘 (수) 12

찬송 / 456장 본문 / 수 9:1-15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승전에 매우 고무되었고, 여리고와 아이성 주변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면 대결보다는 동맹을 맺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일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족속으로 위장하여 여호수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이 일의 주권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실수하고 말았습니다(15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결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귀한 순종"(삼상 15:22)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곤고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4, 5절).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8절).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기브온의 속임수는 사단의 속임수와 같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고후 11:14)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깨어 있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3 (목) 탄로난 기브온의 속임수

찬송 / 361장 본문 / 수 9:16-27

기브온의 거짓말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 왔지만 결국은 가까운 곳에서 온 자들이며 생존을 위해 거짓을 꾸민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16,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주도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향해 원망과 시비를 일으켰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18-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져 묻자 그들은 "생명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에서 물긷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삼습니다(22-27절). 언약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시 15:4),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결국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숨겨진 거짓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일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히 11:6). 경솔하지 않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가나안의 땅을 정복함 (금) 14

찬송 / 448장 본문 / 수 10:1-43

본 장의 내용은 크게 가나안 남부 지방의 다섯 왕의 동맹(1-5절), 기브온 족속의 구원 요청과 동맹군에 대한 승리(6-14절), 다섯 왕의 처형(15-27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28-43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이 눈치 빠르게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살 길을 얻게 되자, 나머지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일종의 배신감과 함께 자구책으로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다섯 동맹국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큰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 위에, 그리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도록"(12, 13절) 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므로 동맹군들은 마치 초개와 같이 궤멸되고(18-21절), 동맹군 다섯 왕들도 허무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22-27절).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감되고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진군하여 결국에는 라기스까지 정복했습니다(33절).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헌신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세고 그렇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적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가만이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일꾼만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5 (토) 철저히 순종하는 삶

찬송 / 492장 본문 / 수 11:1-23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요구하며 믿음은 순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을 거론할 때는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그것은 그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6, 8절)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한 대로 적을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사실(9, 12, 15, 20절)입니다. 15절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잘 묘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같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땀과 눈물이 요구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고통스런 여정이 길게 펼쳐지기도 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일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주일) 16

찬송 / 284장 본문 / 수 12:1-24

사람들은 흔히들 장미빛 인생을 꿈꿉니다. 그들은 '언젠가 내게도 신데렐라처럼 환상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은 채 사단의 세력에 맞서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삶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과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되었던 요단 동편 땅의 왕 시혼과 옥을 비롯해서 33명의 왕의 이름과(1-6절) 남방 성읍에서 멸한 16명의 왕의 이름(7-16절), 그리고 북방 성읍의 15명의 왕의 이름(17-24절)들이 거명됩니다.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싸움으로 얻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고,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단의 세력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7 (월) 온전히 바치는 삶

찬송 / 369장 본문 / 수 13:1-33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서의 새로운 분기점을 형성하는 장입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 분배를 다룹니다. 본 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분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남방 지역이(15-2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북방 지역이(29-31절),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그 두 지파 사이의 땅이 각각 분배됩니다(24-28절).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에서 어떤 기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14, 33절). 왜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지역마다 다 흩어져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기 지파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져 살며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 땅에서 하나의 '빛과 소금' 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는 오늘날 주의 일꾼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을 잘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모든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며,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4)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주님의 일꾼들은 레위 지파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전심으로 기다리며 따르는 삶 (화) 18

찬송 / 448장 본문 / 수 14:1-15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영성(靈性)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영성일 것입니다. 현대인은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빨리' 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기다림 없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림의 영성. 그것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본문은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갈렙입니다. 그는 45년 전에 모세의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곧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45년 동안 기다리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갈렙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기다리며 주님만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다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 전심으로 기다리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19 (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삶

찬송 / 492장 본문 / 수 15:1-63

오늘날 사회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지만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일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좇아 끝까지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13-19절)에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담대한 믿음은 분명 그의 사위 옷니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옷니엘은 장인의 믿음을 본받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을 때 그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삿 3:7-11). 또한 갈렙의 믿음은 그의 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밭과 그 땅을 비옥하게 할 윗샘과 아랫샘을 구합니다. 이것은 딸의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자신들에게 남겨 줄 수 있었던 재산보다 그의 믿음의 본이 그 가족들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준비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세든' 성도들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귀감이 되어야 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믿고 그분만 온전히 따르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도 제목 / ①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 (목) 20

찬송 / 284장 본문 / 수 16:1-10

성도들이 신앙 생활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가 향유하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안전 등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지요?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도 먼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의해 장자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창 48:8-20).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물리치시고 차자를 선택하십니다. 아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북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로, 땅이 기름지고 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남과 북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여실히 입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1 (금)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

찬송 / 174장 본문 / 수 17:1-18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신자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전적인 순종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12-13절).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민 33:52-56).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노역이나 조공을 제공받고 싶은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철병거로 무장한 일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나 머지 않은 장래에 분명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삿 1:29).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순종의 쓰디쓴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죄는 그 불씨라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약속된 하나님의 지경(地境) (토) 22

찬송 / 397장 본문 / 수 18:1-28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는 기업이었습니다(신 1:21).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을 자신의 힘으로 취하려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보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신 1:28).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용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수 1:5, 9). 여리고성과의 싸움, 그리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의 지경을 일곱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종의 자만심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잡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3 (주일) 공정한 나눔

찬송 / 278장 본문 / 수 19:1-51

18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는 일곱 지파를 위해 나머지 땅을 나누며 제비를 뽑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경을 정한 다음 시므온 지파의 지경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9절).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으나 인구에 비해 차지한 기업이 많았음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를 위해 그 중 일부 성읍들을 떼어 주게 된 것입니다(민 26:14, 22).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형제에게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재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약한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의 분깃을 떼어 주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마 10:42).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 볼 수 있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우리의 도피성 (월) 24

찬송 / 79장 본문 / 수 20:1-9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택하여 세우라고 이르셨습니다. 이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재판받기까지 살려 두기 위함입니다(2절).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 재판은 도피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받는 심문이며 두번째 재판은 회중 앞에서 시행되는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것입니다(4, 6절).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피의 보수자가 피고인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살인자를 내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살인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기 때문입니다(5절).

오늘의 본문은 부지 중에 실수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허물과 죄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흉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범죄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형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의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받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가정에, 교회에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5 (화) 레위 지파의 분깃

찬송 / 492장 본문 / 수 21:1-45

본문은 맨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레위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되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달라고 요구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성읍이 분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따라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창 49:7),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은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을 자기들의 거주지로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수 18-19장). 레위인도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유다 지파가 모두 기업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서 거할 성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부터 시작한 땅 분배가 21장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들의 지분을 떼어주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과 성읍을 다 정복케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생각을 앞세워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불안한 나머지 사람과 환경에 매어 달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고도 신실하신 계획을 발견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약속을 누리는 삶 (수) 26

찬송 / 455장 본문 / 수 22:1-9

본문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분배된 성읍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지켰습니다(2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3절).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4절).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5절).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 은, 금, 동, 철, 그리고 많은 의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재물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어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8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 자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가 주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깨끗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내가 가질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라는 확신 아래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7 (목) 성급한 오해

찬송 / 278장 본문 / 수 22:10-20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 가에 아주 큰 단을 쌓았습니다(10-11절).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16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세 지파를 무력으로 징계하려고 실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12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성급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강 건너편에 장막을 얻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급한 오해가 같은 민족간의 유혈 사태로까지 번질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19)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만큼 충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명백히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성급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참으로 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분주한 가운데 시간에 쫓겨 사는 세상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를 주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화해를 위한 노력 (금) 28

찬송 / 505장 본문 / 수 22:21-34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급한 오해에 대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차근차근 자신들이 왜 단을 쌓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23절). 그들이 단을 쌓은 진정한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세 지파들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질문할 것에 대한 대책이었음을 밝혔습니다(27절). 이 단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는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만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의로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28, 34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성급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급한 오해에 노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한 세 지파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소한 오해가 평생의 상처와 격리로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갓, 반 지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여유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대사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해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화해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29 (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

찬송 / 265장 본문 / 수 23:1-16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숨질 때까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숨질 때를 맞았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14절).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숨질 때를 맞는 그의 고백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모은 후 자기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6절). '이방인의 길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입니다(11절). 이 단순한 순종의 삶의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될 것입니다(15-16절).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자' 이십니다(3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5, 14절). 단순한 순종의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한번 분명히 알게 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자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살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주일) 30

찬송 / 340장 본문 / 수 24:1-13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중대한 당부를 끝낸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개인이 받은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시기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자주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됩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나의 신(神)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분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 나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31 (월) 결단하라!

찬송 / 519장 본문 / 수 24:14-37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 18:21)라고 외쳤을 때, 그의 가슴은 우유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찢어지듯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한 여호수아는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 이 단순하고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절).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 고 고백합니다(16절). 그러나, 사사기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사후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슬쩍 슬쩍 타협하게되면 결과는 여지없는 실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씩' 이 중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입술의 결심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5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6월 한 달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가서 서문

'아가' 의 뜻은 노래들 중의 노래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 입니다. 보통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한 남자와 한 여인 간의 연속되는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순하신 사랑의 촉감을 느끼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공 간의 깊은 대화, 그리고 친구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노래는 간혹 노골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랑의 표현들로 인해 우리들을 당황케 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우리들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솔직하고도 당당한 사랑의 표현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아픔과 기쁨의 열매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풍성함을 잘 맛보게 해 줍니다.

아가서의 주요내용

사랑의 시작 1:1-5:1
- 사랑에 빠짐 1:1-3:5
- 연합됨 3:6-5:1

사랑의 발전
- 사랑 속의 갈등 5:2-7:10
- 사랑 안에서 자람 7:11-8:14

제 1 과

아가서(1)

사랑하는 자의 행복

찬 송 / 414장
읽을 말씀 / 1:1-3:5
공부할 말씀 / 1:5-11

먼저 읽기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두 가지의 노래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노래는 2장 7절까지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두번째 노래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첫번째 노래부터 곧바로 시작되는데, 아마도 왕이 궁전으로 데려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먼저 입을 뗍니다.

그리고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계속되는 두번째 노래는 거의 이 여인의 말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노래에서 이 여인은 팔레스타인에 찾아온 봄의 전경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젊은 열정과 활기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자의 뿌리칠 수 없는 초대를 노래합니다. 이 부분은 '낮의 사랑'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는 그리움으로 가득찬 밤의 꿈을 노래합니다.

함께 생각하기

1. 노래하는 여인은 예루살렘 성의 세련된 여인들이 흘겨볼 만한 자기의 외모로 인해서 다소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6절)?

2.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적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5절)?

3. 7절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을 길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8절은 아마도 합창단의 화답가인 것 같습니다. 이 합창단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8절)?

4. 9-10절은 남자의 말입니다. 외모로 인해 다소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 남자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열등의식으로 힘겨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신을 침체시키는 열등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겨내도록 용기를 준 것은 남자의 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이 여인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아 주는 남자의 사랑으로 인해 이 여인은 '사랑의 용기'를 내어 남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염려들로 힘겨워하십니까?

3.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 남자를 찾아 달려가기까지는 주위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감사를 회복한 일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이러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2 과

아가서(2)

달려오는 사랑

찬　　송 / 404장
읽을 말씀 / 3:6-5:1
공부할 말씀 / 3:6-4:10

먼저 읽기

이제 무장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3:7-8) 솔로몬 왕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솔로몬이 어디로 가는지, 또한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혼하기 위해 그녀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이 화려한 행렬을 보고 있던 한 구경꾼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4장의 내용은 사랑을 연모하는 남자의 말로써 아름다운 시(詩)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3:6)?
   * '연기기둥'은 군대행렬이 일으키는 먼지이기도 하지만 진동하는 향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2. 솔로몬의 연(마차, 가마)에 대한 묘사가 매우 세세합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3:7-10)?

3. 솔로몬의 모습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3:10 하반-11)?

4. 4장 전체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솔로몬의 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의 절정에서 그는 여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4:9-10)?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여인에게 구혼하기 위해 단장하고 달려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 새 예루살렘성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결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솔로몬은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고 묘사합니다. 여인은 보잘것없는 농부의 딸이었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에게 온 마음을 줍니다. 이는 먼지 같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제 3 과

아가서(3)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찬 송 / 252장
읽을 말씀 / 5:2-7:10
공부할 말씀 / 5:8-16

먼저 읽기

이제 여인은 밤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섭니다(5:2-8).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남자가 온 듯하여 문을 여니 남자는 몸을 돌이켜 가버리고, 대신 여인은 야경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현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꾼 꿈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후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임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6장 4절부터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남자의 칭찬이 다시 이어집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8절)?

2. 여인의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9절)?

3. 예루살렘 여자들의 반문을 들은 여인은 그들을 향해 자기가 찾는 남자에 대하여 매우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4장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을 묘사한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의 묘사내용을 찬찬히 읽어 봅시다. 모든 묘사를 마친 후 여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1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사랑하는 자를 찾는 여인의 모습은 가슴이 시릴 정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채우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2. 9절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인의 임을 찾아주기 위해 남자의 신상에 대하여 묻는 것일수도 있지만, 질투심어린 말로 빈정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빈정거리는 말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도데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러냐?' 이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자들을 향해 대답할 어떤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역예배공과 5 / 28 (금)

제 4 과

아가서(4)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찬　　송 / 449장
읽을 말씀 / 7:11-8:14
공부할 말씀 / 8:5-7

먼저 읽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여인의 노래, 8장 5절 전반부는 친구들의 합창, 그리고 다시 8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여인의 노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친구들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순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8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노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최종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이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고서 벌판을 가로질러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5절 상반절). 5장 후반부는 남자가 여자에게 한 말인지 여자가 남자에게 한 말인지에 대하여 약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이 고백에서 남자는 여인을 처음 만났던 상황을 회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5절 후반부)?

2. 6절부터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은 남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6절 상반절)?

3. 여인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6절 후반절-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당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대한 처음 사랑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 여인은 남자를 향해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으로 죽음보다 강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8:35-39). 당신이 이렇게하여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9 과

교제의 생활

찬　　송 / 377장
암송할 말씀 / 요일 1:7

묵 상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2.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3.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4.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

7.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8. 사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행 2:44-46)?

9. 진실한 사귐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죄들은 무엇입니까(막 3:29)?

11.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히 7:27, 9:26)?

12.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적 용

12. 진정한 교제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 다 같 이

성경봉독 ·····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1999년 5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헌
· 집필진 / 이승수, 정갑신, 김인식, 이승학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 등록번호 / 제9-110호(1977. 1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 552-8200 [비매품]